

##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

# 젊은 총무원장 스님 닮아 불교도 젊어지길...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자들의 환호에 일일이 답하고 있다.

“하루하루 사찰에 가 절하는 낙으로 삽니다. 이제 는 바깥에 안 좋은 일이 알려져 실망하는 일이 없었 으면 좋겠어요.”(서울 금천구 감미숙씨)

“젊은이들이 점차 절에 오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이제는 스님들부터 발 벗고 젊은 사람들 찾아나서 야 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젊은 만큼 불교계도 젊 게 발 벗고.”(서울 성북구 신경우씨)

임동(立冬)을 앞둔 11월 5일, 연이를 매서운 한파 에도 조계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수난의 근원대사 를 고스란히 담은 조계사에 모인 5000여 사부대중 은 새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불교 중흥이 이뤄지 길 발원하고 또 발원했다.

이날 불법 흥포를 위해 모인 각계각층의 사부대 중은 조계사에 드리워진 만장 민름이나 다양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란 법문

巧方便으로 대중을 보살피고 중풍을 바로 세우라’ 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불교는 소 외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되겠다”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사회 와 인류에게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제시할 것을 천 명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제32대 총무원장 취임법 회와 달리 해외불교계와 청년불자를 대표한 화환증 정이 눈길을 끌었다.

전국신도들을 대표해 중앙신도회 김희정 회장과 조 계사 신도회 이연숙 신도회장의 화환증정에 이어 미얀마, 요르단 대사와 대불련 이경환 회장이 화환을 증정했다.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전 진행했던 김포미 아와 미안파 등 학교 건립 지원과 은정불교문화재 단 이사장으로 청소년불교교리경시대회 등 해외불 교·청년불자 양성이란 종단 운영 방침을 상징하는

## 각계 화환 장사진... 불교중흥 발원하고 또 발원 이명박 대통령 “소통·화합 적임자, 국민화합 힘쓰길”

그대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를 따라 온 아이 부터 젊은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지역 사찰 의 스님들과 지팡이를 짚고 온 노보살들의 모습에 서 부처님의 자태가 보였다.

취임법회는 11시부터였지만 조계사는 아침부터 들쭉했다. 종로인근부터 북인사동까지의 경치동 거 리는 지방에서 상경한 불자들을 실어나른 버스로 즐비했고, 조계사 경내 주차장은 일찌감치 가득 찼 다. 총무원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는 각계의 화환이 장사진을 이뤘다.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 좌측은 스님 들, 우측은 재가자들의 자리로 골고루 배정됐다. 비 좁은 공간을 활용코자 배석제가 운영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보살들 어느 하나 불평이 없었다. 불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합 장하며 미소를 건넸다.

도량 곳곳에 서있던 불자들은 오전 11시 타종과 함께 육법공양이 시작되고 열리자 조용한 가운데 자리를 찾아 앉았다.

사회자 정만 스님이 법회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자승 스님은 꽃을 등 탄뎡동녀와 함께 입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여야 대표 인사들 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정치를 잊고 웃으 며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이 부처님께 헌화한 뒤 참석 자 모두는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종정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불렀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의 부 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을 통해 “불일(佛 日)이 넘치고 도업(道業)이 곳곳에서 다 시 일어나고 있다”며 “항상 자기절복(自己 折伏)과 근기(根機)에 알맞은 선교방편(善

의식)이기도 하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랍 55세의 젊은 총무원장의 취임을 바라보는 바깥의 기대에 찬 축하도 이어졌 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대독 축사로 “소통과 화합의 ‘적임자’라며 “국 민화합에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으며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신형 대표 회장도 “불교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 계도에 힘 을 모으자”고 축사를 보냈다.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불자들의 바 람은 한결 같다.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百尺竿頭進 一步 十方世界現全身),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 는다”고 강조한 자승 스님의 취임사처럼 젊은 총무 원장, 젊은 불교가 한 발 한 발 과감히 불법흥포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1월 5일 조계사 앞마당은 한국불교 중흥을 기원하는 불자들이 가득했다.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계 안팎에는 젊은 총무원장으로 불교계가 더욱 활발 한 대사회 행보를 펼쳐길 기대하고 있다.



조계사 앞 특설무대에는 정관계 내외빈과 원로의원 스님들이 배석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왼쪽)를 비롯한 불교계 내외 인사들이 자승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 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 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 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 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 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 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 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식 사 용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 108염주 / 흑단목 108염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 108염주는 기력이 자랄하여  
보수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8cm 155,000원  
→ 향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특별한 의미를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  
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르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분신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